

문화부

인쇄출판 진흥계획 발표



2002년 7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판및인쇄진흥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인쇄출판진흥계획'이 지난 5월21일 발표됐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직접 설명한 '인쇄출판진흥계획'을 살펴보면 2007년까지 국고 1348억원을 포함, 총 6567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는데, 인쇄문화산업 진흥방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방안, 전자출판시장 진흥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쇄업계를 위한 직접적인 진흥계획을 살펴보면 총 3억원과 민자 3억원이 투입될 인쇄역사문화관 건립 사업, 파주인쇄산업단지 조성 지원 사업, 국내외 도서전참가 지원사업, 인쇄종합축제 지원사업, 인쇄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경인쇄조합 · 서울조합 통합



2003년 신년 정기총회의 화두는 인쇄물 제값 받기와 조합 통합이었다. 그리고 약속대로 지난 5월22일 서울인쇄정보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울조합 고수근 이사장과 경인쇄조합 김학규 이사장은 양 조합의 통합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양대 조합 대표들끼리 합의한 조합 통합 논의에 대해 서울조합 조합원들은 6월13일 제주도에서 가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 통합을 승인했으며, 경인쇄조합 조합원들도 7월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열띤 토론 끝에 통합 안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서울조합과 경인쇄조합 양 조합의 통합이 최종 타결됐다.

2003년 12월 현재 경인쇄 조합은 청산위원회를 통해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경인쇄 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전원 서울조합으로 합류한 상태이며, 임직원들 또한 서울조합으로 흡수된 상태이다.

인쇄역사문화관 조성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인쇄문화회관 건물에 인쇄인의 염원이 깃들여진 '인쇄역사문화관'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별 활자와 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활자 전문 인쇄역사문화관으로 꾸며질 '인쇄역사문화관'은 정부의 지원금 3억원과 민자 3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인쇄역사문화관'에는 활자 전문 문화관이라는 문화관의 취지에 맞게 조선시대의 활자 등 고대의 활자와 서책을 원본에 근거해 복원 전시하고, 석경, 박 활자 등 특이 활자도 전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모기, 주조기, 색분해기, 활판 인쇄기, 단색 · 2색 · 4색 · 8색 인쇄기, 윤전기, 제본기 등 활판과 현대 인쇄 공정에 필요한 각종 인쇄기들의 모형이 전시된다.

또한 고 인쇄 및 현대 인쇄와 관련된 국내외의 도서 등을 구비한 자료실이 운영되며, 금속 및 목판 인쇄를 경험할 수 있는 고대 인쇄 체험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인쇄역사문화관은 12월중에 개관 예정이다.

활발한 해외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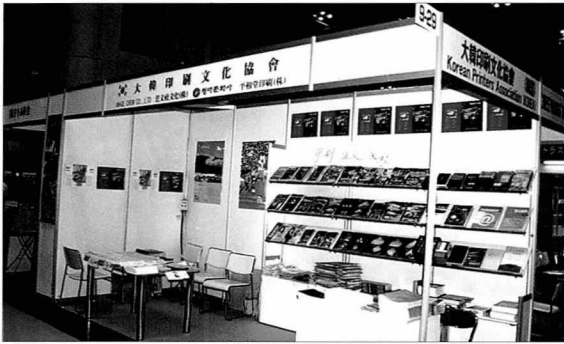
2002년에는 한국 인쇄계가 중국 및 일본과 활발한 교류를 가진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우선 한 · 중 인쇄협회의 협정에 따라 대한인쇄문화협회의 초청으로 중국 인쇄기술협회 대표단이 8월30일부터 7박8일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 양국의 우호 협력을 다졌다. 중국대표단은 보진재, 한국문원, 동양인크 등을 방문한데 이어, 9월3일에는 서교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인쇄문화의 날에 참석, 행사를 더욱 뜻깊게 했다.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도 9월22일 동경도 빅사이트홀에서 동경도인쇄공업조합과 교류협정 조인식을 갖고 추후 인쇄기술에 대해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의 '국제특수인쇄산업전', 일본의 '국제그래픽아트종합기재전', 중국의 'All Print in China' 전시회 등이 열려 한 · 중 · 일 삼국 인쇄업계의 우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행

동경국제도서전 참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인 한국의 인쇄문화를 알리고 수출촉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4월24일부터 27일까지 동경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열린 '2003동경국제도서전'에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주



관한 한국인쇄문화전시관이 마련되었다.

인쇄문화협회와 이미지크루(대표 최현수), 정문사문화(대표 민재기), 평화당인쇄(대표 이일수), 청아문화사(대표 김남수) 등 4개 회원사가 함께 참여해 운영된 한국인쇄문화전시관은 인쇄 중주국 한국의 위상을 한껏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인쇄관련 업체들의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해당 전시회 참가가 문화관광부의 각종 도서전 참가 지원 계획 발표 이전에 이루어졌던 관계로 '인쇄출판산업 진흥계획'에 도서전 참가 지원 항목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인쇄업 불황 심각

인쇄업의 불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사, 발표하고 있는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은 인쇄업의 월별 경기를 감안했을 때 1999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생산지수는 구제금융의 한파 시기 때 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2003년 8월 현재 61.3%를 보이던 인쇄 출판 및 기록매체 복제업 평균 가동률은 2002년 8월 대비 5.1%, 2001년 8월 대비 0.5%, 2000년 대비 2.3% 낮은 수치이다.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산업생산지수는 평균가동률보다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인쇄 및 관련 업계의 2003년 9월 산업생산지수는 89.2로 1997년 8월의 생산지수보다 25.8% 낮은 수치이며, 99년 2월의 85.9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청주직지축제 열려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홍보하고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3 청주직지축제'가 지난 9월

4일부터 7일까지 직지의 고장 청주 일원에서 열렸다. 20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개막축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 위주로 마련해 고려시대의 직지를 2003년으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85%이하 낙찰무효' 서명운동



과다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한 '입찰제도 개선 입법청원 서명 캠페인(조달청 인쇄기준요금 85% 이하 낙찰 무효)'이 업계 최초로 진행됐다. '인쇄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인사모)' 주관 하에 지난 1월10일 명보극장과 고당기념관 앞에서 벌어진 캠페인을 시작으로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두 달 동안 1494명에 이르는 인쇄관련 종사자들이 참가해, 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인사모에서는 서명운동 기간에 모아진 인쇄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열의를 바탕으로 입법 청원 운동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용이치 않아 일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PRINKOR 2003 성황



제2회 국제특수인쇄산업전(PRINKOR)이 지난 9월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 인도양관에서 개최됐다. 세계 각국 40여개사에서 참여한 을 전시회에는 스크린 인쇄분야 및 특수인쇄 분야, 제판 및 출력기 분야, 소형 오프셋인쇄기 및 디지털인쇄기 분야, 조각기 및 특수 가공 분야, 포장 및 지가공 기계 분야 등 특수인쇄 전반에 관한 제품이 전시됐다.

총 2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된 을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곳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고인쇄체험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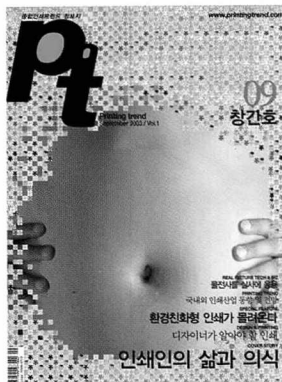
인협

직지찾기운동 전개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직지심체요절' 찾기 운동에 돌입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과 함께 진행된 직지찾기운동을 위해 인협은 1만장의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회원사는 물론 지방 관공서, 박물관, 사찰 등에 배포했다. 지난 1993년부터 직지찾기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협회의 올해 직지찾기운동은 다소 잊혀진 듯 했던 직지찾기운동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월간PrintingTrend 창간



아이디자인(대표 김용찬)에서 발행한 월간 PrintingTrend가 지난 8월 25일 창간호를 발행했다. '차별화', '고품격', '신속 정확'을 내세운 월간 PrintingTrend의 창간호는 인쇄 관련 종사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월간 PrintingTrend는 172페이지로 제작되며, 인쇄는 물론 출판 디자인 분야까지 보도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연합회

정보화기반구축 지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곽득룡)가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정보화 기반구축 지원 대상 조합으로 선정됐다. 주요 추진 사업은 공동구·판매, 잉여·불용자재 거래, 단체수의 계약 배정 및 입찰관리 시스템, 전자결제 등이 가능한 e-Marketplace 구축, 시장·산



업·기술·수출입 정보, 회원사 및 회원사의 제품·부품 DB구축, 전자카탈로그 구축 등의 업종별 특화 포털 사이트로 구축된다.

김정선 사장·김봉선 사장

대통령표창



인쇄업계 인사들이 각종 시상식에서 연달아 수상의 소식을 전해온 한해였다. 9월 3일에 열린 제15회 인쇄문화의 날 행사에서는 4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보진재 김정선 사장이 대통령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광재(서진인쇄사) 사장, 양기성 사장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노주현(진양인쇄공사) 사장 외 11명이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5월 21일 중소기업청이 개최한 중기인 대회에서는 김봉선 인천조합 이사장이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유재후(동문당피앤아이) 사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김중만(현대인쇄사) 사장이 3월3일 열린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삼화인쇄 박상윤 제책부 조장이 4월 30일 열린 근로자의 날 행사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서울조합 이사장선거전 후끈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장 자리를 놓고 선거전이 후끈 달아 올랐다.

내년 2월 정기총회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되는 이사장 후보로는 2001년에 출마 경험이 있는 D사 J사장, S사 L사장과 단체장을 지낸 바 있는 H사 K사장, 모 단체 현 부회장인 K사 H사장 등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며 연령이 40대인 조합원 중 한명이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이번 선거전은 4~5파전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기자)